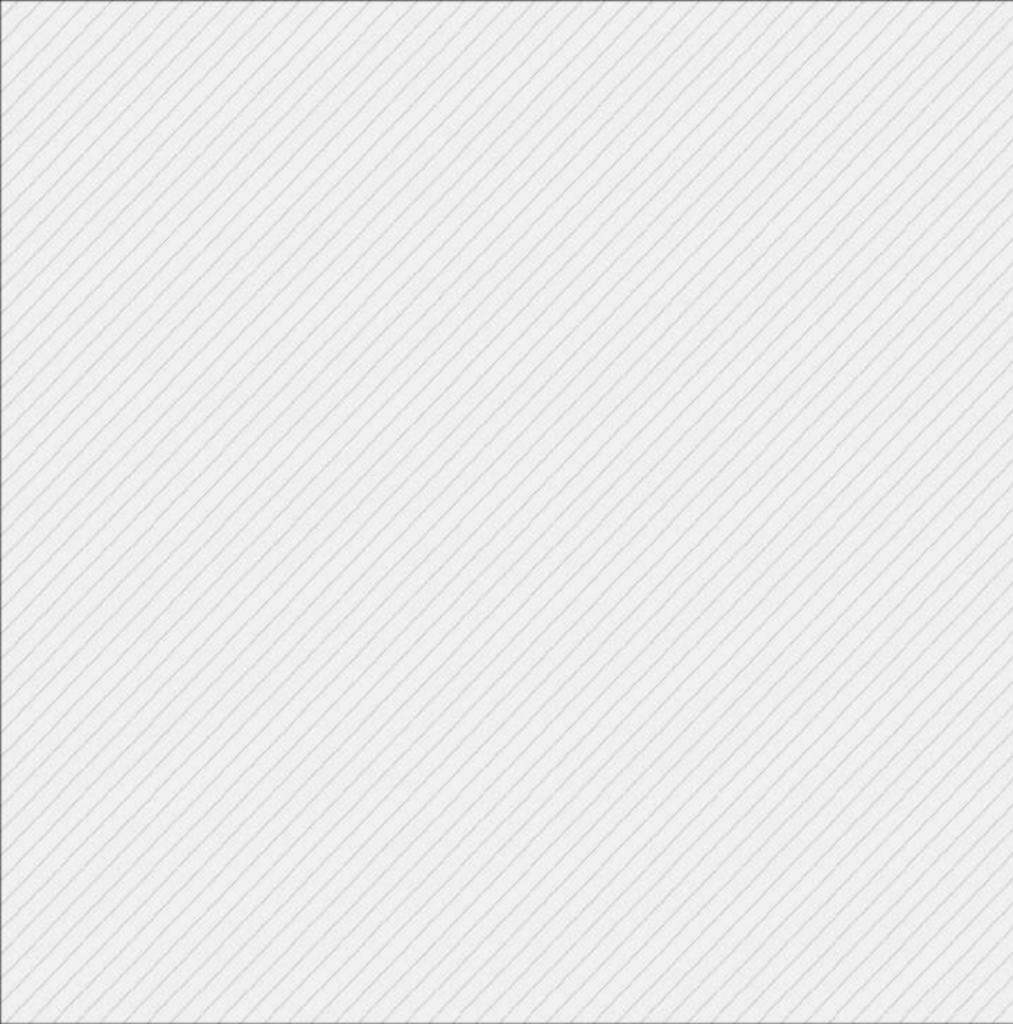


#아산서원
#제14기
#VOYAGE





#아산서원

#제14기

#VOY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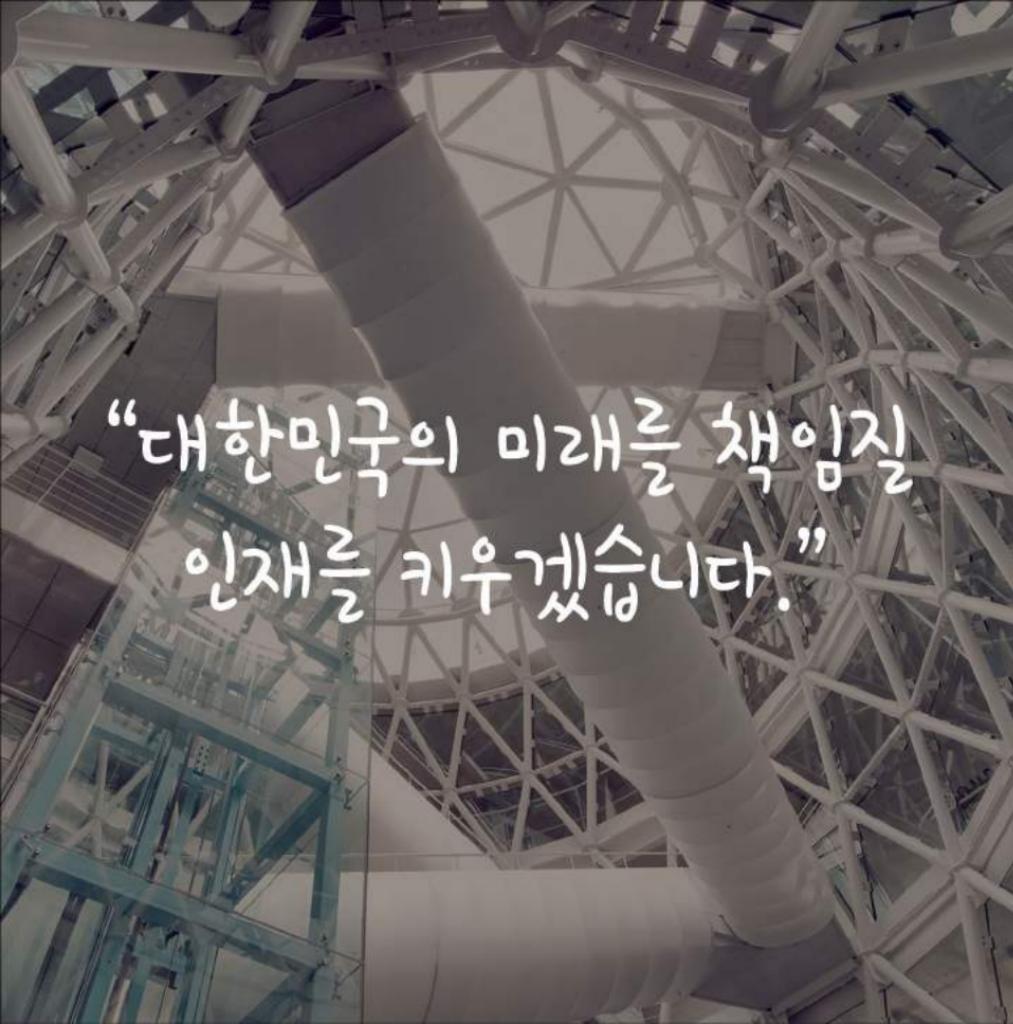


아산_정주영

나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
자본이나 자원,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 확신한다.

아산(峨山) 정주영(鄭周永) 선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ASAN_ACADEMY
교육목표

인문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은 한국의 전통적인 서원(書院)교육과 현대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을 접목한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합니다.

공동체를 아끼는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은 원생 전원이 아산학사(기숙사) 생활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에 필요한 자질을 계발하도록 합니다.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 원생들에게는 미국과 중국의 유명 싱크탱크와 비영리 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문 소양 #공동체 #국제 감각





김가은

#학력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졸업
#장래희망 교육정책 연구원
#포부 다른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파견기관 American Jewish
Committee



김민정

#학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장래희망 애널리스트
#포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되겠습니다.
#파견기관 The Heritage
Foundation





김소현

#학력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4학년
#장래희망 교육방송 PD
#포부 꾸준히 정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파견기관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김지원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 학과 / 사회학과 4학년
#장래희망 언론인
#포부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파견기관 Atlantic Council



김연두

#학력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3학년
#장래희망 국제분쟁 연구자
#포부 끊임없이 흔들리며 배워가겠습니다.
#파견기관 The Heritage Foundation

김해인

#학력 연세대학교 철학과 / 지구 시스템과학과 3학년
#장래희망 지질 전문가
#포부 즐겁게 배우고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파견기관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남성현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
운영학과 4학년
#장래희망 해양플랜트 CEO
#포부 나만의 언어와 표현을 만들
겠습니다.
#파견기관 New America



류태림

#학력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아동가족학과 졸업
#장래희망 정치인
#포부 배워서 남 주겠습니다.
#파견기관 Office of
Congressman Mike Kelly



박신혜

#학력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국제학과 3학년
#장래희망 국제기구 종사자
#포부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
게 비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파견기관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박지혜

#학력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
경영학과 3학년
#장래희망 약자를 돋는 사람
#포부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파견기관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서단비

#학력 전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3학년

#장래희망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람

#포부 사회를 변화시킬 불쏘시개
가 되겠습니다.

#파견기관 Hudson Institute

윤소향

#학력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
학 융합사회과학부 / 영어영문학과
4학년

#장래희망 인문학자

#포부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
겠습니다.

#파견기관 Office of
Congressman Mike Kelly



이나경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학과
/ 경제학과 4학년

#장래희망 북한 전문가

#포부 최고가 되기보다는 유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파견기관 The Henry L. Stimson
Center

이상규

#학력 한동대학교 경영학 / ICT융
합 전공 4학년

#장래희망 CEO

#포부 땅에 굳게 딛고서 별을 볼
수 있는 巨人이 되겠습니다.

#파견기관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이소연

#학력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4학년
#장래희망 꿈꾸는 언론인
#포부 깊게 생각하고 높게 꿈꾸겠습니다.
#파견기관 Hudson Institute



이태현

#학력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4학년
#장래희망 국제공무원
#포부 함께, 즐겁게 성장하겠습니다.
#파견기관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이주연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 영어전공 4학년
#장래희망 문화콘텐츠 기획자
#포부 1년 뒤 멋지게 성장한 저와 마주하겠습니다.
#파견기관 Amnesty International



이해인



이해인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장래희망 국제개발협력과 사회혁신 비즈니스를 잇는 전문가
#포부 스스로의 중심을 찾겠습니다.
#파견기관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이호정



이호정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4학년
#장래희망 철학교육 전문가
#포부 겸손하게 배우고 담대하게
실천하겠습니다.
#파견기관 Atlas Corps

정하람



정하람

#학력 서강대학교 철학과 / 경제
학과 3학년
#장래희망 경제학자
#포부 나만의 인문학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파견기관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정상은

#학력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
공학부 졸업
#장래희망 건축가
#포부 오늘을 즐기겠습니다.
#파견기관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차지현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장래희망 다큐멘터리 PD
#포부 나만의 색을 가진 원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파견기관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차지현



홍설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학 /
예술경영전공 졸업
#장래희망 문화예술경영인
#포부 누구도 걷지 않은 나만의
길을 찾겠습니다.
#파견기관 East-West Center



#하주도 조용할 날 없는
#23살 무지개
#거짓말 같았던 우리의 1년



#인문과목

#조선왕조실록 #전자문과 역무요구 #대학 #중용
#파이드로스 #군주론 #오리엔탈리즘 #미국의 민족주의
#우리말 글쓰기 #영어 글쓰기 #우리말 토론
#전통음악과 표준 #프로젝트-개별 발표



『조선왕조실록』
조선 퍼즐 맞추기 #김지원

이남희 교수님께서는 첫 수업 시간에 다 같이 조선이라는 커다란 퍼즐을 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하셨다. 각자의 관심분야로 주제를 정해 직접 「조선왕조실록」을 밤새 찾아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을 잊지 못한다. 동기 원생들의 이야기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5백 년 왕조의 혼이 담긴 종묘 답사까지 마치니, 이전에 내가 알던 조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커다란 새로운 퍼즐이 완성되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단단한 나라 조선을 거울삼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고민해 나가고 싶다.

#조선의 퍼즐 #조선에서는? #종묘 답사





『천자문』과 『격몽요결』

기본을 배움으로 얻은 소중한 선물 #박지혜

김석근 교수님의 『천자문』과 『격몽요결』 수업은 인문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었다. 『천자문』에 나온 한자들은 5서5경을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수업시간에 『격몽요결』을 깊이 있게 배웠는데, 다소 친근한 주제들에 대해 울곡 이이와 원생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또한 원생 발표시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발표는 사친장과 관련해 진행한 부모님의 영상편지였다. 23명 원생의 부모님에게 따로 연락을 드려 영상편지를 받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었는데, 부모님들의 말씀을 통해 한동안 잊고 있던 부모님의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기본 다지기 #소중한 선물 #생각 엿보기 #부모님의 사랑



君之於民 主之於僕 군지어민 주지어복
其理一也 기리일야
君不恤民則民散 군불출민즉민산
民散則國亡 민산즉국망
主不恤僕則僕散 주불을복즉복산
僕散則家敗 복산즉가폐
勢所必至 세소필지

"임금이 백성을 대하고 주인이 종들을 대하는 것
그 이치는 하나이다.
임금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해掉여,
주인이 비복을 돌보지 않으면 비복이 흩어지고
비복이 흩어지면 길이 파망하는 것은
형편상 불침영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대학』

동양철학의 본모습을 느끼다 #이해인

소진형 교수님의 『대학』 수업은 기대감과 공포감을 동시에 주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유교에 대한 편견을 기반으로 성리학에 관한 글을 읽고 비평문을 쓰는 과제를 하다 보니, 사실과도 다르고 내 주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학』을 번역하고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우리 문화권이 속해 있는 유교에 무지했다는 점과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떤 철학이 지배적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동양철학이나 유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었던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동양 정치철학이 어떤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편견에서 벗어나 #성리학 한번 듣여다보자







『중용』

삶의 지침서, 『중용』 #김소현

이치억 교수님의 『중용』 수업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었다. 『중용』은 인간 모두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 있고, 그 어떤 사람도 군자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가르침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 있어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토론 시간에는 치열하게 삶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교수님의 코멘트는 삶에 도움이 될 자양분이 되었다. 『중용』은 단순히 오래된 유학 고전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 꼭꼭 음미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다.

#삶의 지침서 #중용은 내 안에



『파이드로스』

소크라테스와 함께한 나날들 #이상규

아름다운 강변 숲속에서 이루어지는 파이드로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담긴 『파이드로스』를 통해 우리는 지나가듯 생각해보기만 했던 소재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깊이 고민해보았다. 차근차근 소크라테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그의 논리에 빠지고 만다.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의 담론은 마치 그가 나를 보면서 직접 설명하는 것 같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사랑, 광기, 신적인 영감, 영혼 등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았고 생소하게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와 이상원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lover and non-lover #파이드로스 내 친구여!
#Where to? #And from where?





43



『군주론』

『군주론』을 통해 보는 삶의 지혜 #차지현

김경희 교수님께서 현장사의 '로렌조 데 메디치 전하'를 지우고 각자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을 때, 나는 중세시대의 군주가 되었다. 좋은 군주는 무엇이고, 권력을 유지하면서 미움받지 않는 군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폭압적인 정치를 장려하는 책이라는 선입견과 다르게 「군주론」의 핵심 내용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비난은 받아들이되 미움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인간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군주론」은 현대 정치에서도 중요한 통치 방법을 제시하며, 인간관계 등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지혜까지도 제공한다. 마키아벨리는 내가 가진 *virtu*와 주어진 *fortuna*를 잘 이용해 앞으로 내게 닥쳐올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좋은 군주란 #마키아벨리가 나에게 올리는 그 #나만의 해석과 깨달음



『오리엔탈리즘』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김소현

서양이 동양을 규정하고, 서양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지의 틀'인 오리엔탈리즘. '중동'하면 자연스럽게 테러와 이슬람의 종교적 관습을 떠올리는 나에게 『오리엔탈리즘』의 저자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양의 틀에서 빨리 깨어나라고 말한다. 한 집단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편견, 고착화된 인식, 더 넓게는 편중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가 던지는 수많은 질문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다른 의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고 검열한다. 그리고 서양으로부터 투영된 중동의 이미지를 부수고 진짜 '중동'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서양에의 한 프레임 #오리엔탈리즘 #진짜 중동은?





『미국의 민주주의』

우리가 살아온 민주주의, 살아갈 민주주의 #차지현

김주형 교수님과 함께 들여다본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왜 유독 미국에서만 민주주의가 성공했나?”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를 신기해하면서도 두려워하는 토크빌의 시선을 따르며,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다수의 횡포, 정부의 부패 등 여전히 민주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간파한 토크빌은 해결책으로 언론과 종교, 결사 등을 강조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과 언론에 대한 지지가 사회를 바꾸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



우리말 글쓰기

끊임없는 소통, 글쓰기 #남성현

글을 쓰는 모든 순간이 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제 선정, 개요 짜기, 표현 방식 등 나만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나 진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각자의 생각이 담긴 글을 원생들과 공유하고,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했다. 좋은 글이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글이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글이 아닐까? 글쓰기 수업은 '나'와 '너'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말 글쓰기 #자아성찰 #나만의 이야기 #각자의 개성





영어 글쓰기

간결하게, 그러나 핵심 있게! #박신혜

영어 글쓰기는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동시에 핵심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던 수업이다. 처음 제출한 한 페이지 에세이 과제에 대한 James Kim 교수님의 피드백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거의 절반이 크로스 처리된 내 에세이에 대한 피드백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너무 길게 어렵게 한다”는 것이었다. 간결한 문장으로 주장을 깔끔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내 에세이는 점차 읽기 쉬우면서 누구에게나 공감을 줄 수 있는 에세이가 되었다. 영어 글쓰기 수업은 워싱턴에서 업무를 위한 글을 보다 잘 쓸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어주었다.

#Simple is the best #짧고 굵은 영어 글쓰기 #워싱턴에서의 업무
#두렵지 않아요





우리말 토론

아산서원의 논리왕, 당신의 선택은? #류태림

논리로 사람을 격파한다. 우리말 토론은 다양한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는 수업이다. 주제는 넓게 제시되고 원생들이 자유롭게 논의해 쟁점을 하나씩 좁혀 나가는 재미가 있다. 토론 후 진행되는 원생 간, 그리고 이기범 교수님이 주시는 피드백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음 토론 때 더 논리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100분 토론>의 사회자이신 김지윤 박사님께 토론평가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수업으로 진행된 동·서재 토론을 통해서는 서로의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원생들 사이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수업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더 좋았다.

#말하는 재미 #긴장되는 승부







59



전통음악과 풍류

풍류를 즐기는 법 #김해인

"수업이 마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5% 수준으로 국악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윤희 교수님께서 수업 첫날 하신 말씀이다. 전통음악과 풍류는 국악에 대한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소금과 대금, 가야금, 판소리 등의 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교수님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단순히 감상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흥보기>의 한 구절을 따라 부르고, 강강술래를 하는 등 국악을 몸소 체험했다. 풍류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운치를 즐기는 일이다. 우리는 진짜 풍류를 즐기는 법을 배웠다.

#국악에 대한 모든 것 #풍류를 즐기자







프로젝트 - 개별 발표

내 생에 가장 도전적인 일 #김가은

한 원생은 '손'을 통해 사람들을 알아가는 프로젝트를, 또 다른 한 원생은 한 달간 50만 원으로 살아가는 프로젝트를 하는 등, 23명의 우리는 워싱턴 D.C.에서 자신만의 주제가 담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나는 "What does being Jewish mean to you?"라는 질문으로 26명의 유대인을 인터뷰했다. 낯선 이에게 먼저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하는 내가, 한국도 아닌 미국 땅에서 프로젝트라는 과제가 없었다면 감히 이런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시작이 두려웠지만, 한 발자국 나아가니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기쁨을 느끼고, 그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중요한 배움을 얻게 되었다.

#무서움 #극복 완료





#특강

#Victor Cha 박사님과 대화의 시간

#소에노 요시히데 교수님 <Kim Daejung-Obuchi Reconciliation in 1998>

#손수 선생님 <나의 영국 일생>

#서현 교수님 <평역의 시각화>

#최재천 교수님 <진화와 유전자, 그리고 인간>

#이재현 교수님 <아세안의 이해와 한-아세안 관계>

#이중구 교수님 <경제학 탐구>

#최현정 교수님 <신종안보와 국가미래전략>

#이기범 교수님 <국제법 및 국제분쟁 해결의 이해>



Victor Cha 박사님과 대화의 시간

남북이 나아가야 할 길,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묻고 답하다 #김가은

Victor Cha 박사님은 국제 전략적인 이슈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CSIS에서 한국 석좌로 계신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을 이루어낸 현시점에서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인 Victor Cha 박사님을 직접 만나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박사님께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전쟁에서는 결코 승자가 없다는 말을 하신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를 단순히 이해관계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여러 선택을 해오신 박사님께 감사한 마음과 존경심이 든다. 다음에 다시 만나 볼 때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뵙고 싶다.

#CSIS Victor Cha 박사님 #존경스럽다 #승자가 없는 전쟁





73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님 <Kim Daejung-Obuchi
Reconciliation in 1998>
일본인이 보는 한일관계 #정상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위치로는 가장 근접하여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가 많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멀다. 한일관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90년대에 이미 교류가 진전되었지만, 어디까지 사과로 받아들여 역사적 감정이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의문이었다. 아직 위안부 합의와 아베의 태도 등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소에야 교수님의 특강은 일본인의 눈으로 한일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우리 세대들이 보여줄 새로운 관계도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먼 나라 이웃나라 #3강 속 한일관계 #역사 인식과 장애물





77



손숙 선생님 <나의 연극 인생>
Carpe Diem #홍설

60여 년의 삶을 연극 그 자체로 사신 손숙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라고 말씀하셨다. 문득 Carpe Diem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현재가 전부다. 과거에 발목 잡혀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머물러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잊어버린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의 모든 순간에 집중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삶에서 실감이 나는 순간은 지금뿐이다. 선생님의 특강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매일 매일을 즐겨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의 기회





서현 교수님 <권력의 시각화> 낯설게 보기 #이나경

3회에 걸쳐 진행된 서현 교수님의 특강은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던 빗살무늬 토기 이야기로 시작됐다. 그 이후로 책꽂이에 꽂힌 책들이 왜 저런 식으로 꽂혀 있는지,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왜 그런 포즈를 취했는지 등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우리의 복장이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이 계급 갈등의 결과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에 교수님은 호기심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다.

#낯설게 보기 #건축가 #서현







최재천 교수님 <진화와 유전자, 그리고 인간>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주연

우리는 인간의 기준에서 모든 판단을 해왔다. 하지만 최재천 교수님께서는 인간이 지구에 제일 마지막으로 출현한 막내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동물들은 '생명'이라는 거대한 틀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생존하고 진화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은 그 거대한 생명의 지도 가운데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종이지만, 다른 동물들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지나치게 파괴하고 있다. 유전적으로 우리는 동물과 연결돼 있어 환경 훼손은 우리의 조상을 파괴하는 셈이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며 모든 생명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고민하게 됐다.

#인간 #유전자 #생물 다양성 #생명 존중하기 #HOW?





이재현 교수님 <아세안의 이해와 한-아세안 관계>
ASEAN을 읽다 #김해인

D.C.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에 대한 짧은 조사를 한 적이 있다. ASEAN에 대해서도 찾아보았기 때문에 내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큰 연합체니까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 좋을 거 같다는 일차원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현 교수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나는 동남아시아와 ASEAN을 제대로 구분할 줄 몰랐다는 걸 깨달았다. 교수님의 통찰력 있고 명쾌한 강의는 ASEAN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알고, ASEAN을 새롭게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나라가 한때 ASEAN +3의 주역이었던 만큼의 영향력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 그만큼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테다. 뭐 여차하면 내가 해도 되겠지만 말이다.

#ASEAN #큰 그림을 그리자 #아시아가 대세)



이준구 교수님 <경제학 탐구>

경제는 일상이다 #박신혜

정치외교학과와 국제학과를 전공하는 나는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과 같은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적지 않은 시간 경제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경제학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준구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껏 들었던 그 어떤 수업들보다 이해하기 쉽게 경제학을 설명해주셨다. 특히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경제학의 여러 개념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던 것인데, 행복을 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어 재밌었다. 경제학 특강을 통해 경제는 단순 학문이 아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경제학 #어렵지 않아요 #일상에서 경제를 찾다







93



최현정 교수님 <신흥안보와 국가미래전략>
신흥안보와 국가미래전략 #서단비

처음 <신흥안보와 국가미래전략>이라는 특강 제목을 들었을 때는 들어보지 못한 주제라 생소했다. 하지만 최현정 교수님의 특강을 들은 후 '신흥안보'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전에는 '안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미사일이나 핵, 탱크 같은 것들을 연상했는데, 미세먼지나 오존도 신흥안보의 범위에 포함된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구세대의 무관심과 무지가 장기적 국 가 정책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면서는 젊은 세대로서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함을 느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신흥안보와 국가미래전략 모두 우리 사회의 미래에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에게 핵심적인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신흥안보 #국가미래전략 #지속가능성



이기범 교수님 <국제법 및 국제분쟁 해결의 이해>

국가 간의 컨센서스와 해양법 #김연득

한반도는 세 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바다는 경계가 모호해서 한국은 일본과 독도 및 공동개발구역에서, 중국과 서해에서 부딪친다. 강대국인 일본,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은 한국에게 부담스럽다. 하지만 국제법을 통해 국가들이 국력과 상관없이 대등한 상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UN 해양법 협약 하에 국가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국가 간의 조약과 관습법으로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기범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 독도 문제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분쟁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를 배웠다. 우리는 세계의 분쟁에서 나오는 선례가 우리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넓고 크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다의 주인 #분쟁의 해결방안





#교양과목

#시²중영어 / 영어토론
#사문노이 #봉산타운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체험 #인도 및 울산 문화기행
#합창 #2019 N_Forum #자치회



실용영어

인턴십, 어떻게 준비할까? #김연주

워싱턴에서 파견되는 인턴십 기관에서 처음 영어로 일을 해본다는 걱정을 덜어준 수업이었다. 실용영어 시간에 resume 및 e-mail 작성과 같은 공식적인 문서 작성법을 배웠다. Paul Kim 교수님과 Danton Ford 교수님이 주신 세세한 코멘트를 통해 잘못된 영어 글쓰기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 또한 영어토론 시간에는 공식적인 의사표현을 연습했다. 국제 정세부터 개인적 선호에 대한 것까지 다양한 이슈를 논하며 깔끔한 문장으로 정확한 논리를 전개하는 법을 배웠다. 영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예절을 배우며, 워싱턴에 가서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Be professional #Ready for Washington







사물놀이

사물놀이라는 매듭 #남성현

매주 금요일, 한 주 동안 빽빽한 일정과 과제에 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물놀이를 배우러 가는 길은 멀지만 매번 설렜다. 바쁜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에 몸을 실어 전수관에 도착하면 우렁찬 장구, 북, 징, 팽과리 소리에 놀라 쌓인 스트레스가 도망가는 듯한 후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와 아산 막서 공연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템포를 공유하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내적 충만함 또한 쌓을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한 뒤에 밀려오는 뿌듯함과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섞인 감정은 아산서원이 끝난 뒤에도 14기를 묶어주는 소중한 매듭이 될 것이다.

#사물놀이 #스트레스 해소 #한국의 전통음악 #한국인 정체성 #목표공유







109



봉산탈춤

한삼과 미투리를 챙겨 춤사위의 세계로 #이태현

첫 수업, 허벅지를 단련하면서 만만치 않겠다고 생각했다. 조금은 낯선 우리네 춤 동작을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탈춤에서 풍기는 멋도 감상할 수 있었다. 행복했다. 하나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사물놀이를 하는 원생들과도 장단을 맞춰봤다. 모두 같이 연습을 하면서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도 얻었다. 아산서원이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우리의 흥과 춤사위를 알아가는 시간이 값지고 소중했다. 서원에서 열심히 연습한 모습을 설명회와 워싱턴 믹서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더욱더 뜻깊었다. 금요일마다 원생들과 전수관으로 삼삼오오 이동하던 기억이 오래 남을 듯하다.

#낙양동천 #이화정 #한삼 #미투리 #기마자세 #혼





봉사활동(1): 농촌 봉사활동 땅이 만들어준 공동체 #김연두

가을 하늘 아래 고추 따기 봉사를 진행했다. 파주에 있는 교남어유지동산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농촌 공동체다. 농사로 얻은 농작물과 가공품으로 수익을 내는 사회적 기업이자 자연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는 곳이다. 땅을 밟고 흙을 만지는 경험은 즐거웠고, 점심을 먹으며 식탁에 올라온 농산물에 감사하게 되었다. 기관 선생님께서는 봉사시간이 짧아 아쉬워하는 원생들에게 앞으로 사회에서 이곳을 소개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마을과 어우러진 교남어유지동산을 통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는 하루였다.



#농촌봉사 #농촌의 긍정적 에너지 #매개 #함께하는 공동체



봉사활동(2): 커뮤니티 매핑 커뮤니티 매핑 #윤소향

우리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 자동문,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내어 '베프지도'라는 앱에 등록하는 커뮤니티 매핑 봉사를 했다. 봉사를 위해 버스를 타려 가면서 주위를 돌아보았다. 휠체어를 탄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혜화역에 내려 휠체어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 거리와 가게를 찾아보았다. 사방이 높은 턱과 좁은 문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우리가 자유롭게 거니는 거리와 가게들이 장애인에게는 닫혀버린 세상이었다. 같은 길이 앞에 있어도 그들에게는 막힌 길이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길과 장소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함께해요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 #베프지도





봉사활동(3): 김장 봉사활동

김장? 함께 해서 힘들지 않아요~ #정하람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김장 봉사를 하기 위해 교남어유지로 향했다. 집에서도 해볼까 말까 한 김장. “우리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잠시, 도착하기 바쁘게 일에 투입되었다. 무를 닦는 팀과 쪽파를 손질하는 팀으로 나뉘어 김장의 밀작업을 시작했다. 팔이 떨어질 정도로 무를 벅벅 닦아내기도 하고, 눈이 매워 눈물을 쏟으며 쪽파를 다듬기도 했다. 지나가던 어유지 분들과 다른 봉사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발달 장애인분들과 함께해 더욱 즐겁고 보람찬 김장 봉사였다.

#김장 #무 #쪽파 #허리 #눈물 #춥지만 따뜻 #보람



봉사활동(4): 머물고 싶은 벤치 만들기

사람의 마음에 색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태현

조금만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 훼손이나 무질서해지기 훨씬 쉽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은 꽤 잘 알려져 있다. 벤치를 예쁜 색으로 페인트칠하고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공동체의 행동이 완전히 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는 마음의 조그마한 움직임으로도 쉽게 번져 나간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벤치의 정돈된 모습은 분명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리라 믿는다. 동기 원생들과 진정한 사회 복지와 공동체 분위기 개선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진정한 사회 복지





123



스포츠활동(1): 체육대회

아산서원 긴 여정의 시작, 힘차고 씩씩하게 #차지현

유난히도 하늘이 예뻤던 가을날.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제14기 원생의 체육대회가 열렸다. 운동조교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다양한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평소 서로 재가 다르거나 학사에서 종이 다른 원생과는 만날 시간이 부족한데, 동서재나 학사 층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어 좋았다.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더 돋보였고,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마니토를 공개하며 다른 원생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다. 평소에 털어놓을 수 없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던 시간 까지, 평생 추억으로 남을 행복한 시간이었다.

#신나는 체육대회 #흥 넘치는 제14기 #수고했어 오늘도





127



스포츠활동(2): 컬링

팀 김? 팀 아산! #이호정

“영미~!”라는 구호로 유명해진 컬링. 부푼 기대를 안고 원생들과 태릉 빙상장으로 향했다. TV에서 보던 것과 달리 컬링은 매우 어려웠다. 균형을 잡기도 너무 어려웠고, 하체 힘도 많이 써야 했다. 그래도 원생들과 함께였기에 넘어져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었다. 기본 훈련을 한 후에 진행된 게임에서는 팀끼리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직접 스톤을 맞춰보며 컬링의 묘미를 알게 되었다. 짧은 시간에 컬링의 매력에 푹 빠졌다. 컬링이라는 팀스포츠를 통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맛보며 팀으로 호흡하는 법을 배웠다.

#영미~! #헐 #얍 #업 #빙판에서 #꽈당 #다리 #후드후드



스포츠활동(3): 고대운동

힘의 집에서 몸과 마음의 힘 얻기 #김가은

고대운동 수업을 통해 누군가 힘에 겨워할 때 “힘내라!”는 말보다는 “힘 빼라!”는 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나만의 기준과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 초반에 25kg 스톤을 힘겹게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같은 스톤을 힘들이지 않고 거뜬히 드는 나를 보며 스스로가 단단해짐을 느꼈다. 성장한 것은 내 몸뿐만이 아니었다. 힘든 인문교육 과정을 이겨낼 힘도, 내 주위 사람에게 다정해질 여유도 모두 체력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힘의 집에서 몸과 마음의 힘 모두를 얻었다.

#고대운동 #일어나 #스톤 들어야지







133



스포츠활동(4): 축구

2002 그리고 2018, 붉은 물결의 힘 #서단비

2002년, 대한민국은 붉은 물결로 뒤덮였다. 그리고 2018년, 베트남도 붉은 물결로 뒤덮였다. 월드컵 4강 진출과 AFF 스즈키컵 우승이 불러일으킨 기적이었다. 이처럼 축구는 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4개월간 아산서원 제14기 원생은 80시간의 축구 수업을 통해 ‘우리는 하나’임을 느낄 수 있었다. 축구 수업 동안 23명의 원생은 팀을 이루어 전술을 짜고 패스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눈빛을 보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축구는 우리에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단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축구 #달려라 아산이들 #팀 #소통 #단합



스포츠활동(5): 조정

조정을 통해 배운 '같이'의 가치 #이주연

개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난들 '협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스포츠, 바로 조정이다. 34도에 육박하는 7월의 어느 날, 우리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으로 향했다. 조정은 시작부터 협동심이 필요했다. 혼자라면 결코 옮길 수 없어 보였던 거대한 배와 10개의 노도 모두가 힘을 합하니 순식간에 선착장까지 나를 수 있었다. 조정의 특이점은 배의 방향을 조정하고 페이스를 담당하는 '콕스(Cox)'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콕스의 지시를 팀원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느냐에 따라 배의 속도와 방향이 결정된다. "하나, 둘" 구령에 맞춰 노 젓는 동작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덧 도착 선이 가까워져 왔다. 조정은 우리에게 '같이'의 가치를 알려주었다.

#조정 #팀스포츠 #협동심 #같이의 가치





Chagall Love and Life

From the Collection of The Israel Museum, Jerusalem



139



문화체험(1): 전시 <샤갈 러브 앤 라이프> 관람 무엇이 예술을 만드는가? #남성현

전시 <샤갈 러브 앤 라이프>는 샤갈의 삶과 작품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예술을 정치선전용으로 이용하지도 않고, 어떤 예술 사조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담고자 했던 샤갈의 모습이 나만의 표현을 찾고자 아산서원에 들어온 나의 모습과 오버랩됐다. 이 오버랩에 더 이끌려 집중해서 관람했더니 샤갈의 삶과 작품은 모두 사랑에서 나왔다는 확신이 생겼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연인 벨라와 그림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통해 예술을 만드는 힘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오직 사랑만이 예술을 만든다.

#예술과사랑 #샤갈과벨라



문화체험(2): 연극 <장수상회> 관람

가슴 뜨겁고 먹먹한 사랑, 장수상회 #박신혜

배우 손숙, 이순재 선생님께서 열연하신 연극 <장수상회>는 따뜻하다 못해 가슴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연극이었다. 작품에서 그려낸 정열적인 사람이 아닌 잔잔한 사랑이 선사하는 먹먹하고 짙은 감동은 그 어떤 사랑이야기보다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김성철(배우 이순재)과 췌장암으로 생사를 다투는 임금님(배우 손숙)이 또다시 사랑에 빠지는 모습에서는 운명적 사랑이 보여주는 깊은 감동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다. 연극을 본 관객이라면 모두 미래의 동반자와 함께 성철과 금님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게 만든 연극이었다.

#가슴 뜨겁고 먹먹한 #사랑 #연극 장수상회





안동/울산 문화기행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 #김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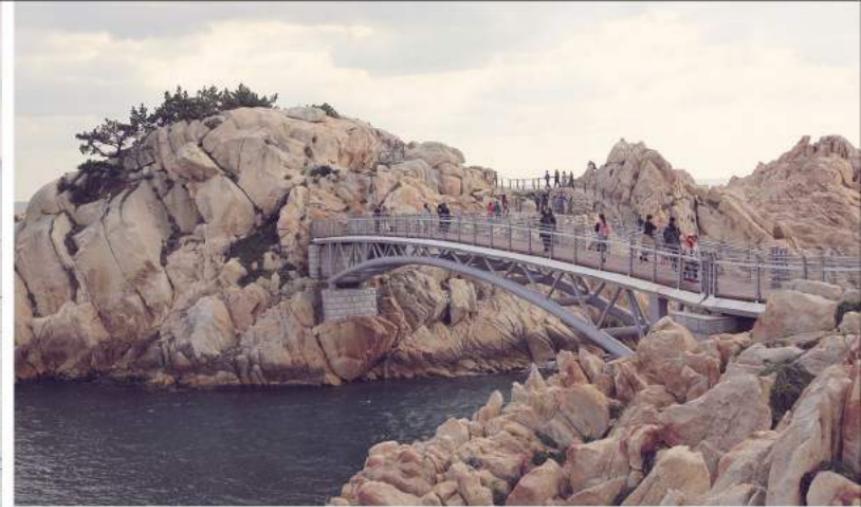
바쁜 한 학기가 끝나고 안동/울산으로 다녀온 문화기행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주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함께 기차를 타고 안동에 도착하여 처음 본 월영교는 정말 아름다웠다. 도산서원에서는 수업을 통해 배운『대학』경1장을 함께 외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과거 도산서원의 원생이 되어보는 새로운 경험도 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울산 대왕암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도 했다. 맑은 날씨도 우리를 돋는 것 같았고, 마침 단풍나무도 정말 예쁠 시기여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마지막 날 밤에 가진 원생들끼리의 솔직한 대화 시간이었다. 2박 3일의 기간을 통해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앞으로 남은 서원 생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진짜 서원으로 #떠나요 #함께라서 행복해 #힐링타임











합창

Asan Fellas 합창단 #윤소향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제14기 원생들이 'Asan Fellas'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노래했다. 합창에서는 노래 실력이 아닌 듣기 실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합창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며 박자에 맞추고 옆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며 소리를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늦은 밤 라운지에 모여 함께 노래했다. 작은 음악회에서 첫 공연을 선보였고, 서원에서의 소중한 525,600분의 여정이 끝날 때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사계절 동안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배웠던 일 년을 돌아보며 노래할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함께 #노래해요 #Seasons of Love





155



2019 N_Forum

변화의 시작, New Power #김지원

들뢰즈의 '리즘(Rhizome)' 철학에서 시작해 '라이더 유니온'의 노동 가치까지, 아산나눔 재단에서 개최한 2019 N_FORUM을 관통하는 것은 'New Power'였다. 개인이 대중을 변화로 이끄는 수많은 사례를 보며, New Power의 시대에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틀에 박힌 규칙들이 지배하는 Old Power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New Power로의 이동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New Power 세대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심 가져야겠다.

#Break the Frame #Break the Rule #New Power



자치회

더 나은 서원 생활을 위한 의견 조율의 자리 #박지혜

자치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서원 생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조선 시대에도 서원 생활을 하는 동·서재 원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치회를 이루었다고 한다. 대표단의 주도로 열린 자치회에서는 매주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통해 조율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의견 조율을 다 하면, 원생 개개인이 맡은 역할에 따라 공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더 나은 서원 생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자치회는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모두 한자리 #거짓 없는 모습 #공지 전달 #의견 교환



누군가가 내 권리 위해 싸워주기를 바랐을 때 AJC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 김기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정책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김민정

넓은 세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김소현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는 경수함, 나의 목소리를 내는 자신향,
비판을 수용하는 건강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 김연우

수많은 물음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진 크고 작은 퍼즐 조각들을 모아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지원

외교와 정치 모두 결국 사람이 사람과 하는 일이란 것을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배웠습니다.

- 김해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각자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 남성현

합리적인 논리와 일관성을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윤태경

구제정세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얻고, 가슴 따뜻한 많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박신혜

일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박지혜

낯선 속에서 새로운 배우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 서단비

‘나’에 대해 잘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 시간이었습니다.

- 윤소향

싱크탱크 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이나경

다양한 경험들과 소중한 만남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상규

위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는 워싱턴 D.C.에서 기쁘게 배우고 힘들게 고민하며 나 자신을 알아갔습니다.

- 이소연

미국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이주영

누군가에게 꿈의 생활을 일상으로 겪으면서 워싱턴을 깊숙이 살폈고, 옆에 앉아 있는 동료로부터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 이태현

낯선 뉴동자와 낯선 컴퓨터 앞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이해인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과 '그를 믿는 눈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배우고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호정

서로 다른 의견이지라도 그것들이 모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 정상운

한국에서 보는 세계를 넘어,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정하람

시시각각 달라지는 국제정치처럼 매 순간 성장하는 나를 마주했습니다.

- 차지현

넓은 세계무대를 누비며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 홍설

#Washington



**American Jewish Committee**

한국인으로서 유대인 권리 단체에서
일한다는 것은 #김가은

미국의 인종, 민족적 평등을 끌어내는 것이 결국 유대인 인권보호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AJC의 접근법은 미국 사회 전체의 인권 및 평등을 고취하고 있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전 세계 및 기관들이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으로서 AJC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수호하며 북한의 핵 문제가 이스라엘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협력할 수 있는, 협력해야만 하는 운명공동체이다. 그 안에서 나는 교도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탈무드밖에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Amnesty International

어둠을 탓하기보단 한 자루의 촛불을 켜자 #이주연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 국제 앤네스티 창립자, 피터 베넨슨의 말씀이다. 국제 앤네스티의 상징은 촛불이다. 칠흑 같은 인권 탄압의 어둠이 드리우더라도 촛불을 밝히며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자는 의미에서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정당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 앤네스티는 오늘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Government Relations 팀에서는 각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조명하여 그것이 미국의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돋는다. 의회로 청문회를 들으러 가거나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로부터 늘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촛불 #희망의 불씨 #인권 #국제 앤네스티

**Atlantic Council**

나만의 퍼즐 맞추기 #김지원

"Working Together to Secure the Future"라는 구호 아래 매주 펼쳐지는 Atlantic Council의 수많은 콘퍼런스에 참석하며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매일 아침,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사들을 모아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함께 국제 이슈를 고민하는 커다란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까지 참여하면서 나는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콘퍼런스에서 직접 질문하고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으면서 복잡하게만 보이던 국제 사회의 퍼즐을 하나씩 맞출 수 있었다.

#넘치는 기회 #나만의 퍼즐 #묻고 답하다





Atlas Corps



Atlas Corps

변화를 끌어내는 움직임 #이호정

"Talent is universal, but opportunity is not." Atlas Corps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구다. 이러한 가치 아래에서 전 세계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른 기회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이 바로 Atlas Corps다. Fellow 선발부터 미국 입국, 인턴십 기관과의 매칭까지 책임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fellow들은 미국에 모여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Atlas Corps는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마련한다. 기관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변화의 씨앗이 되어 더 큰 물결을 만들어내기를 꿈꾸고 있다.

#기회 #한 사람의 힘 #미션 #비영리 기구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사람들의 교차점에 서서 #이상규

나의 주된 업무는 리서치와 연구 보조였다. 핵 정책 부서에서는 북핵,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 언론 보도들을 번역, 정리 및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리서치 및 보고서도 작성했다. 아시아 부서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논문, 언론 보도들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현상의 숨은 본질을 궤뚫어 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Junior Fellow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며 값진 시간을 보냈다.

#Research #Study #소중한 인연 #교차점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민주주의와 비즈니스의 연결고리,
CIPE가 해냅니다 #이해인

CIPE는 개발도상국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하며 해당국가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일을 한다. 아시아팀 인턴은 팀 간행물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아시아의 주요 뉴스를 브리핑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그외에도 관심 분야 회의에 참석하거나 블로그 글을 쓸 수 있다. 나에게는 CIPE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가 특히 인상깊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어떤 모습인지, NGO의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임팩트 측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웠다. 인턴십을 시작한 추운 겨울이 지나 막바지인 여름이 되니 처음에는 흐릿했던 민주주의와 비즈니스의 연결고리가 보이는 듯하다.

민주주의 # 비즈니스 # 연결고리 # NGO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당신은 중국을 아는가 #이태현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군사 안보 분야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싱크탱크인 CSIS가 바라보는 중국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주된 업무는 군사, 경제, 기술, 사회, 국제 위상 분야에서 중국의 위치를 분석한 기고문을 매달 발행하는 일이었다. 기고문 작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재구성하며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조사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물론, 전문적인 업무 분위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국제학 전공 수업에서 이름이 종종 거론되었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나는 이야기와 함께 일한 뛰어난 동료들의 모습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

#중국 #톺아보기 #국제학 #싱크탱크 #대명사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먼 나라 이웃 나라, 북한 #차지현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인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비단
파직 싱크탱크인 CSIS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매 순간 변화하는 국제
정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다. 다양한 콘퍼런스, 청문회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지만 비핵화를 향하는 과정과 역할이 각기 다르며, 이
를 보는 시선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배웠다. 하노이 회담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있
던 것처럼 정해진 규칙도 정답도 없는 외교의 재미도 느꼈다. 예측 불가능한 나라인 북
한을 대할 때 뜨거운 사랑이 아닌 정교한 접근과 관심이 필요함을 배웠다.

#북한 #Impossible state #한반도 #코리아체어 짱짱



East-West Center

문화 교류의 중심지 #홍설

East-West Center는 아시아 지역이 미국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과 미국 간의 최신 이슈를 분석하여 새로운 상관 관계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는 특정 국가의 교육, 문화, 무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가 미국과 현재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배우고, 나아가 향후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웹사이트 *Asia Matters for America*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최신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만의 언어로 풀어 쓰는 방법을 배웠다.

#아시아와 미국 #관계 읽기 #나만의 언어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워싱턴에서 바라보는 '한국' #정하람

기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KEI의 E가 'Everything'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KEI는 워싱턴에서 안보와 직결된 북한 이슈뿐만 아니라 한국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관이다. 나는 다양한 신문사의 한국 관련 기사를 안보, 정치, 경제, 평론 총 네 가지 영역으로 정리하는 업무와 함께 매주 발행하는 기관의 뉴스레터에 기사를 써내는 일을 맡았다. 하 나의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서술해가며, 워싱턴에서 한국을 다양한 시각으 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웠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나 만의 물음과 답을 던져보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Korea in Washington #Everything #Insight



**New America**

다양성은 행복의 필요조건이다 #남성현

New America는 “Renewing America”라는 하나의 비전 아래, 디지털 기술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비당파적 싱크탱크다. 다른 싱크탱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 내에서부터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Cybersecurity Initiative Team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대화 속에 다양성이 보장될수록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대안이 나오기도 하고, 동시에 공동체 속 모든 구성원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Diversity #Technology Policy #New America #Cybersecurity



Office of Congressman Mike Kelly 여의도와 Capitol 사이 #류태림

Mike Kelly 의원실은 유권자 서비스부터 외교적인 사안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중앙정부보다는 연방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국가의 통제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공화당의 가치를 전파한다. Mike Kelly 사무실의 인턴들은 사무실 유지와 유권자 응대 및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관련 미팅이나 브리핑에 참여한다. 외교 분야, 특히 한국 국회의원과 하원 의원들의 교류와 관련된 미팅에 참석할 기회가 많았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고, 활발한 교류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연방주의 #한미교류 #Capitol



Office of Congressman Mike Kelly



Office of Congressman Mike Kelly
의회에서 '민주주의'를 엿보다 #윤소향

Mike Kelly 하원의원님 사무실에서의 주요 업무는 유권자 응대다. 유권자들이 의원실을 찾아오면 맞이하는 일, 유권자들의 전화와 편지를 통한 의견을 정리하여 올리는 일을 한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의회 투어를 진행하면서 의회 건물들과 의회가 담고 있는 미국의 역사를 속속들이 알 수 있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정치 참여에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을 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고 의회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는 것 이 인상 깊었다.

#의회 #입법 #민주주의



G | M | F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STRENGTHENING TRANSATLANTIC COOPERATION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유럽, 아시아의 연결고리 GMF #박지혜

“Transatlantic”은 GMF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다. 대서양을 넘나드는 이 단어처럼 GMF는 대륙의 관계 증진을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독일에 있는 팀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D.C.에 있는 두 건물을 오가며 다양한 사람들과도 교류한다. 책자 업데이트, 뉴스 클리핑, 자유 주제 글쓰기 등을 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해 연구하는 Research Fellow를 도와 보조 연구를 하며 포럼을 준비하기도 했다. 보조 연구를 하며 국제관계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점심을 먹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도 들을 수 있어 폭넓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

#Transatlantic #GMF 1700 #교류 #관계 #Intern Brown Bag



The Henry L. Stimson Center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로 가는 길 #이나경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스팀슨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제안하는지 배웠다. 처음엔 새로운 용어와 언어적 장벽이 나를 우울감에 빠지게 했다. 그때 가장 힘이 된 건 거의 매일 찾아가 질문을 하는 나를 환영해준 Pam과 Jason이었다. 덕분에 부정적인 감정들은 나를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변화했다. 이곳의 장점은 인턴을 전문가로 존중해주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점이다. 스팀슨 생활을 '화웨이'로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는 인턴 기간 내내 화웨이 이슈를 연구했다. 스팀슨 센터에 온 덕분에 연구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Yuki Tatsumi #Yun Sun #Pam Kennedy #Jason Li
#Qiongyi Chen #Taro Sato #East Asia Program





The Heritage Foundation 보수주의의 가치 #김민정

기업의 자유,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튼튼한 안보. 이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내세우는 미국 정통보수의 가치다. 매일같이 First Principle Lecture를 들으면서 미국 보수가 강조하는 가족과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다는 점이 공감되었다.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 형성에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것을 보며, 정치는 단순히 투표 경쟁을 통해 다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바로잡았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넓게 이해하고,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The Heritage Foundation #THF intern #Conservative value



The Heritage Foundation
'미국'을 지키는 헤리티지 #김연두

헤리티지에게 보수주의(conservatism)란 자유, 기회, 번영과 시민사회를 지키는(conserve)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자들을 타깃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관련 자료와 근거를 제공한다. 매주 2번의 수업을 통해 자유와 평등 등 미국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민, 핵 조약과 같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헤리티지의 견해와 개개인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다. 특히 내가 속한 아시아 부서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종교적 자유,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미국이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을 이용해 아시아 국가 내 인권 문제에 영향을 왜, 어떻게 끼칠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어 좋았다.

#보수주의 #인도-태평양 #미국전략 #종교적 자유





Hudson Institute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곳 #서단비

Hudson Institute는 전통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방, 국제 관계 등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미래를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싱크탱크다. Dr. Richard Weitz는 인턴들에게 두세 개의 Weekly Project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 선택권을 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것을 독려해주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해당 분야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관련 콘퍼런스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이를 통해 Hudson에서 주로 다루는 북핵 문제와 평소 관심사인 인권을 결부시켜 북한 인권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고찰할 수 있었다.

#Nuclear #Project #National Security #Missile Defense
#Russia-US Relations #North Korea



Hudson Institute

내가 나답게 일할 수 있는 곳 #이소연

Hudson은 국가 안보를 비롯해 인권, 종교 자유까지 다루는 연구 기관이다. 그중 정치-군사 분석팀 소속으로 주로 중국, 러시아 핵 안보에 대해 단순한 연구 보조가 아닌, 어려움이 알고 있던 지식과 흘러져 있던 생각을 정리하여 의견을 세워야 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국제정세를 다루는 콘퍼런스에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고, 방송국에 동행하거나 직접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려 항상 노력해주신 슈퍼바이저 Richard Weitz 덕분에 전공과 흥미에 맞는 개인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다른 누군가가 되기보다는 나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work-life balance #다양한 주제 #안락한 삶 #웰컴투허드슨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Advancing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U.S.-Asia Relations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여럿이 하나가 되는 곳, 맨스필드 #김해인

프레지던트 Frank Januzzi가 우리 기관을 'Bridge Builder'라고 했을 때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아시아와 미국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며, 사람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곳이 바로 맨스필드이기 때문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 사람들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각국의 공통된 관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생각과 생각을 잇는다. 맨스필드를 거쳐 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보면서는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보았다. 맨스필드의 일원이었던 나 역시 이곳에서의 경험과 만남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일본 #한국 #미국 #promote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bar-none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국제법에서 인권 문제의 해법을 찾다 #박신혜

RFK Human Rights에서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다양한 카테고리(사회/정치/경제 등) 내의 법 조항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위반 사례와 관련한 제언을 하고, 이 조항을 어떻게 개정해 더 나은 인권신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 앞에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던 내게 RFK Human Rights에서의 인턴 생활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됨과 동시에, 법이라는 일종의 이성 작용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RFK Human Rights #인권 #평등 #국제법 #세상을 바꾸는 힘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누군가는 생각해 왔던 북한 인권 #정상은

HRNK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NGO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부터 수용소, 탈북자 문제 등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출판한다. 이 모든 일이 워싱턴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항상 새롭다. 북한 이슈는 모두 비핵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지만, 이 작은 기관이 만들어 내는 인권 개선의 변화는 절대 작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워싱턴에서의 인턴 생활은 이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HRNK #북한 인권 #준비와 #변화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과거로의 시간여행 #김소현

윌슨 센터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이다. 세계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는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한다. 그러나 윌슨 센터의 History and Public Policy 부서에서는 냉전 시대의 1차 사료와 대화록, 전보, 외교 문서 등을 아카이빙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그리 멀지 않았던 과거의 대화록을 매개체로 현재 외교 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윌슨 센터에서 미국 사회가 장려하는 투명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저명한 학자들 속에서 연구하는 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역사 #과거로의 시간여행 #투명성 #정보공유 #학자의 삶



#Mark Manyi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연구원님
#Edwin Feulner 전 The Heritage Foundation 회장님
#Joy Yamamoto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님
#Melissa Chiu Hirshhorn Museum 관장님
#Mark Lippert 전 주한 미국대사님

#미국 의회 방문 #미국 의회도서관 방문
#KEI 모의 6자 회담 #The White House 방문
#Asan Academy Networking Mixer
#AJC 오찬 간담회 #National Symphony Orchestra 관람
#The Pentagon 방문 #Shenandoah Valley 문화기행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방문
#비공식 활동

#Washington
#Friday Program



215



**Mark Manyi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연구원님**
연구원의 삶이란? #이해인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연구원 Mark Manyin 박사님은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원생들의 기관에 관해 물어보시고 관심 있는 주제를 미리 검토하며, 듣는 원생들 위주의 강의를 계획하셨다. 특강 시점이 북미정상회담 이전이었던 만큼 Manyin 박사님과의 대화는 회담에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한·미·일·중 관계에 관한 주제로 자연스레 흘러갔다. 회담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서 쓰아지는 원생들의 질문에 매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이야기로 대답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강연 끝에는 주변 관광지도 소개해주시 #따수운 강의였다
#한중일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219



**Edwin Feulner 전 The Heritage Foundation 회장님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 #이호정**

대표적인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Edwin Feulner 전 회장님을 만났다. 1973년부터 2013년까지 현장에 계셨던 회장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가치를 고수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온 회장님의 생애. 그리고 헤리티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보수주의라고 하면 떠올리는 막연한 부정적인 감정과는 달리, 헤리티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싱크탱크가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능할 수 있었다. 내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이며,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수?! #싱크탱크와 정치 #가치관





**Joy Yamamoto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님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 #이나경**

정치는 나와 동떨어진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싱크탱크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배우게 되었다. 특히 스팀슨 센터 동아시아팀에서 한, 중, 일, 미 등 많은 나라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Joy Yamamoto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님의 강연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배울 좋은 기회였다. 북미 하노이 회담, 한일 관계,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평소 자주 접했던 주제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장님의 의견을 들으며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Geopolitics #Department of State #USFK #BRI
#Hanoi Summit







227

**Melissa Chiu Hirshhorn Museum 관장님**

This is Art because I say it is Art #이호정

Hirshhorn 미술관은 예술 작품을 볼 때 하나의 고정적인 시각보다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음을 견지하기 위해 원통형의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대미술도 이와 마찬가지다. '미술'에 대한 고정적인 정의에서 벗어나 각자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바로 현대미술이다. Melissa 관장님의 현대미술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다소 난해하게 느껴졌던 현대미술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현대미술의 대표작들을 보며 현대미술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관장님께서 '아시아 현대미술'이라는 전문 연구 분야를 찾기까지 어떠한 노력과 생각들이 있었는지 들음으로써 연구되지 않은 분야에 뛰어드는 도전정신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현대미술 #난해하지만 #한 걸음 더





231



Mark Lippert 전 주한 미국대사님
[낯설게 보기 #이나경](#)

Boeing에 들어서자 “환영합니다. 아산서원” 문구가 가장 먼저 보였다.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우리를 환영해 주는 곳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Mark Lippert 전 대사님이 재직 중인 Boeing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정치, 안보를 다루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를 들었다. 한국 정치, NATO, 한중관계, 한일관계 등 한 번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도 성심성의껏 답해주셨다. 진로 고민이 많은 원생에게는 “Try different things.”라는 조언을 해주시며 강의는 마무리됐다. 특별히 이번 특강이 있을 수 있게 Mark Lippert 전 대사님과 연결해준 지원 원생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Mark Lippert #KBO #진로상담 #한국에 관한 모든 것





미국 의회 방문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 #이상규

D.C. 중심에는 백색의 국회의사당 Capitol이 우뚝 서 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법부의 중심인 Capitol 곳곳에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었다. 투어를 시작하기에 앞서 극장에서는 Capitol의 신조 “E Pluribus Unum(Out of many, one)”이 울려 퍼졌다. Capitol에서는 미국의 건국부터 다양한 가치관, 생활방식, 배경,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미국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E Pluribus Unum #다양성과 포용의 힘





237



미국 의회도서관 방문

책과 예술이 공존하는 의회도서관 #윤소향

의회도서관은 아름다운 조각과 벽화들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자 의회의 서재이다. 이곳에서는 도서관을 예술작품으로 감상하는 많은 관광객과 더불어 책을 들고 다니는 국회의원 및 정기권을 끊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일련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책을 보존하려는 노력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오늘날까지 토머스 제퍼슨의 소장서들을 읽고 의회도서관에 자문할 수 있게 되었다. 책을 둘러싸고 있는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징조와 모습을 묘사한 벽화들이 우리가 의회 안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어 인상 깊었다.

#Capitol Hill #Library of Con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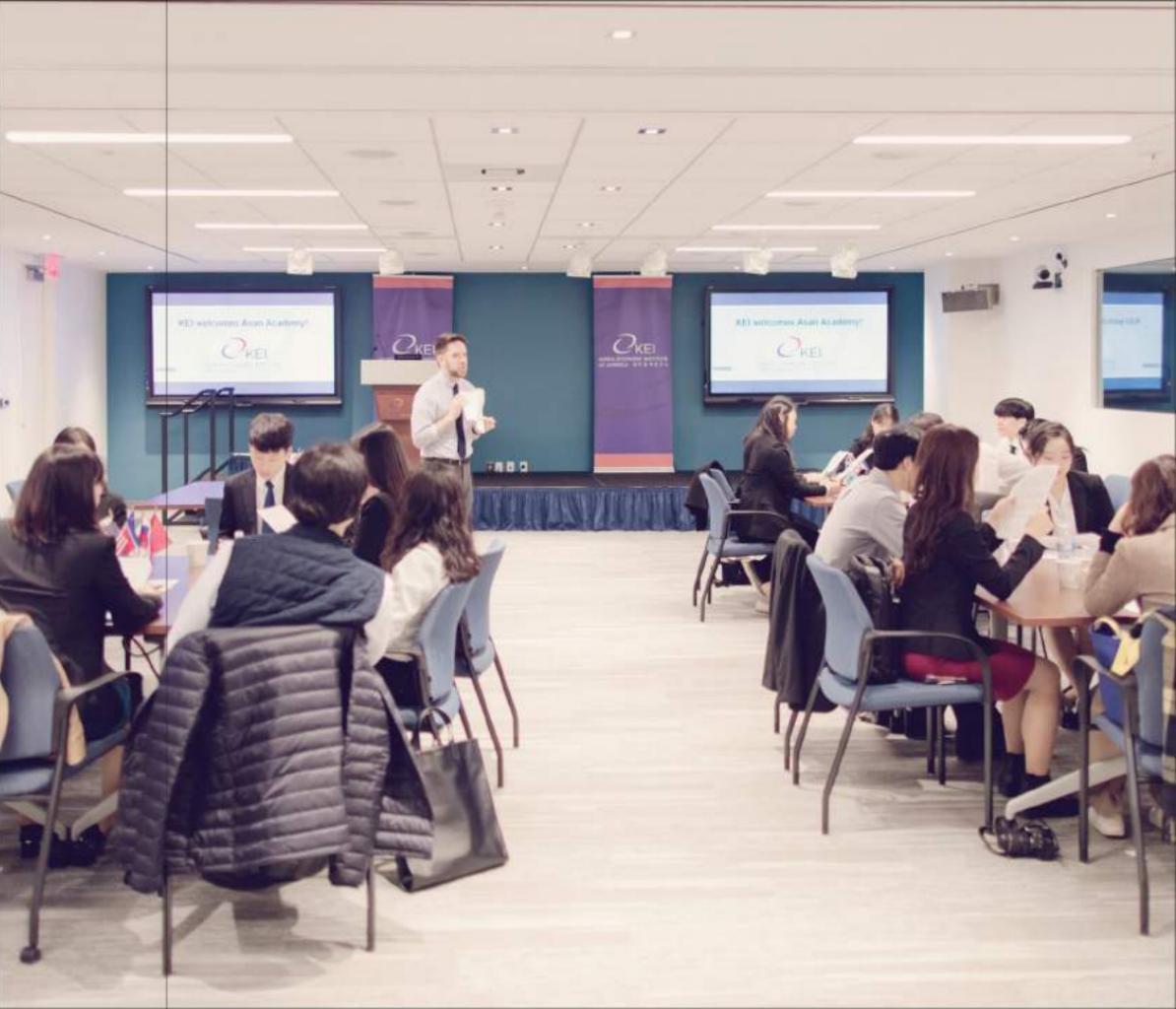


KEI 모의 6자 회담

6자 회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이소연

D.C.에서 인턴으로 생활한지 한 달. 국제관계와 핵 안보, 군사와 정치는 어렵고 낯설다고 생각했다. 원생들이 KEI에 모여 모의 6자 회담을 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어깨너머 듣고 배웠던 단어, 이슈, 의제 하나하나가 내 입에서 나왔다. 각 나라의 대표가 된 원생들은 자국의 입장을 어필하며 협상을 이끌었다. 열띤 협상을 통해 각 기관에서 인턴십을 하며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실제 국제무대에서 나라 간 협상 타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달아,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

#내가 1번 양보할게 #넌 뭐 할래







The White House 방문 작지만 강인한 건물, 백악관 #홍설

세계정치의 중심지인 백악관은 정치적 공간을 넘어 미국의 역사를 보여줬다. 존 애덤스 대통령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곳곳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은 그들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의 리더십도 살아있음을 암시했다. 약 200여 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대통령들의 영광과 아픔이 함께 서려 있는 유산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관람객에게 허용된 방은 132개 중 8개뿐이었지만 오늘날의 미국에 이르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백악관에서 작지만 강인한 힘을 체험했다.

#White House #살아있는 정치역사 #작지만 강하다





247



Asan Academy Networking Mixer 모두가 인연이 되는 믹서 #정하람

3월 28일 목요일, 드디어 기다리던 믹서 날이 되었다! 인턴 업무, 공연 연습, 믹서 준비...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6시 입장시간이 되자 금세 사람들로 붐볐다. 맛있는 한식을 먹고, 제기를 차며 환호를 지르고, 투호도 던졌다. 한글로 부채를 꾸며 보기도 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다 함께 한국을 체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쾌한 팽과리 소리와 함께 전율이 가득한 사물놀이와 탈춤도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모두가 모여 한바탕 악자지껄 떠들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워싱턴이라는 한 공간에서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Networking #Mixer #Socializing #A night out in Seoul







253



AJC 오찬 간담회

소수는 왜 더 강력하게 연대하는가 #이태현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한 후의 감정이 서늘한 슬픔이었다면, AJC 오찬 간담회에는 동질감에서 오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께서는 소수자로서 본인이 어떻게 단단하게 연대해왔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셨다. 유대인과 한국인이 공유하는 감정 역시도 잘 설명해주셨다. 간담회를 통해 로비가 미국 정치에서 지니는 특수한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소수라서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소수라서 더욱 강력하게 연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연대 #소수 #정체성



National Symphony Orchestra 관람 브라보를 외칠 뿐 #이해인

피아니스트와 지휘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50명에 가까운 오케스트라 단원의 손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의 음표는 오케스트라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음악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위대한 조각이기도 하다. 연주자들은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진행 하듯 완벽한 순간에 정확한 세기로 음을 만들어간다. 어느덧 콘체르토가 절정으로 향한다. 바이올린의 현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오르내리고, 협연자였던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음악에 취한 듯 고개를 움직인다. 관객은 백발의 지휘자를 보며 그들이 흘렸을 땀을 생각한다. 더는 감정이 고조될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단원이 연주를 멈췄다. 브라보, 나는 이 말을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다.

#조성진 #피아노협주곡 #Bravo!





257



The Pentagon 방문

가려져 있던 펜타곤의 모습 #정상은

막연하게 떠올리는 추상적인 이미지는 실제를 마주했을 때 달라지기도 한다. 무거운 돌로 쌓아 올린 오각형 펜타곤의 겉모습은 철옹성처럼 단단하고 삭막해 보였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보니 펜타곤은 하나의 생기 있는 도시였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부터 비롯된 이미지가 바뀌는 순간들이었다. 푸른 빛의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사무실, 카페, 식당, 편의점은 군인들과 직원 그리고 방문객으로 붐볐다. 각자의 복도를 차지한 육, 해, 공군과 다양한 부서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다. 강하기만 할 것 같았던 펜타곤에는 9.11 테러의 공격을 받은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도 있었다. 펜타곤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었고, 아픔도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 가는 곳이 펜타곤이었다.

#반전 이미지 #아픈 역사



Shenandoah Valley 문화기행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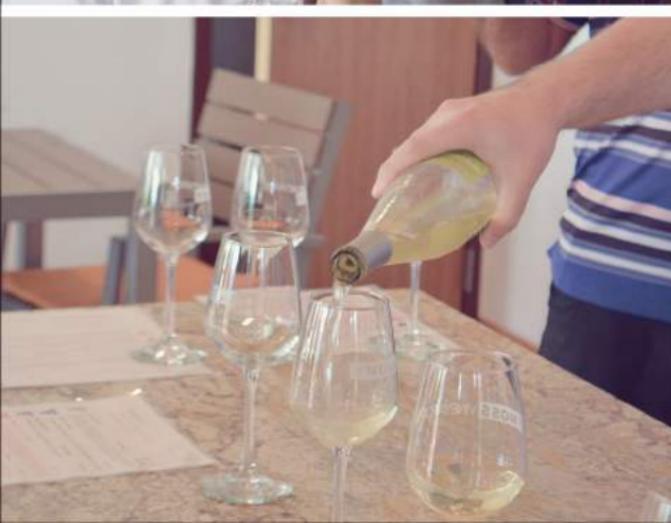
5개월이라는 짧고도 길었던 워싱턴 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Shenandoah Valley로 떠난 문화기행은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했다. 버스에 옹기종기 올라타 하하 호호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끊임없이 웃음꽃을 피워댔다. 서로의 미래 일기를 써주고 미니 사진전을 통해 각자의 솔직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한 우리는 더욱더 끈끈해졌다. 14기 원생들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 행복했다. 어쩌면 이번 문화기행은 23명 모두가 가는 여행으로는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에 우리의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 여행 #추억 쌓기 #행복한 #14기 #문화기행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방문

워싱턴에서 한국을 기리며 #정하람

교복을 입은 원생들은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에 모였다. 우리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한국 전쟁 때 희생된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했다. 워싱턴의 상징인 모뉴먼트와 링컨 메모리얼 사이에서 있는 한국 전쟁 베테랑 메모리얼에 애국가와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이날 작열하는 태양과 같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불타올랐다. 워싱턴에서 한국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너무나 뜻깊은 행사에 아산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해 한국전쟁 희생자들에게 감사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메모리얼 데이 #한국전쟁 #추모 #뜨거운 태양





Korean American Day 워싱턴의 중심에서 한국을 외치다 #류태림

공동체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 소수라고 하면 속히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떠오르지만, KEI가 주최한 Korean American Day를 통해 만난 한국계 미국인 기업가들은 소수의 문화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이다. 한국 화장품과 문화를 수출해 미국 사회에 기여한 이들은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한 사람들이다. 기업가들도 있었지만, 이미 온 한인 가정에서 자라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Andy Kim의 연설도 인상 깊었다.

#미국과 한류 #한인기업





271



March 1st Movement Photo Exhibition 미 국회 속 3·1운동 #정상은

거대한 석조건물 속으로 들어가 보안검색대를 거쳐 만나게 되는 전시장은 국회 건물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엄숙하고 정갈한 다른 사무실들과 달리 전시장 앞은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원생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활기찬 우리의 3·1절 전시는 단순히 민족성을 고취하는 것을 넘어, 세계 속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몸소 느끼고 고민하게 해주었다. 국회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전시한다는 것만으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서로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었고, 그들과 내가 살아온 곳의 역사가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느꼈다.

#3·1운동 #사진전 #미 #국회



개인생활(1): 의 보이는 것 그 이상, 옷차림 #김민정

워싱턴에서는 TPO(Time, Place, and Occasion)에 맞는 옷차림이 중요하다. 단순히 개인의 취향에 따르는 것이 아닌,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갖춰 입어야 한다. 외부 이벤트나 금요 프로그램 등 공식적인 행사에서 나의 첫인상은 복장을 통해 심어진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인 워싱턴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 언제나 적절히 갖춰진 복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처럼 워싱턴 생활을 통해 복장이 가지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배웠다.

#ootd #outfit of the day #look of the day #daily look in DC





275



개인생활(2): 식

인생의 재미, 요리 #박신혜

광화문에서의 서원 생활과 워싱턴에서의 서원 생활의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 식사일 것이다. 워싱턴에서는 재료 구매부터 손질, 그리고 조리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먹는 즐거움 이전에 먹기 위해 준비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요리는 자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를 어떻게 조리하고 담아낼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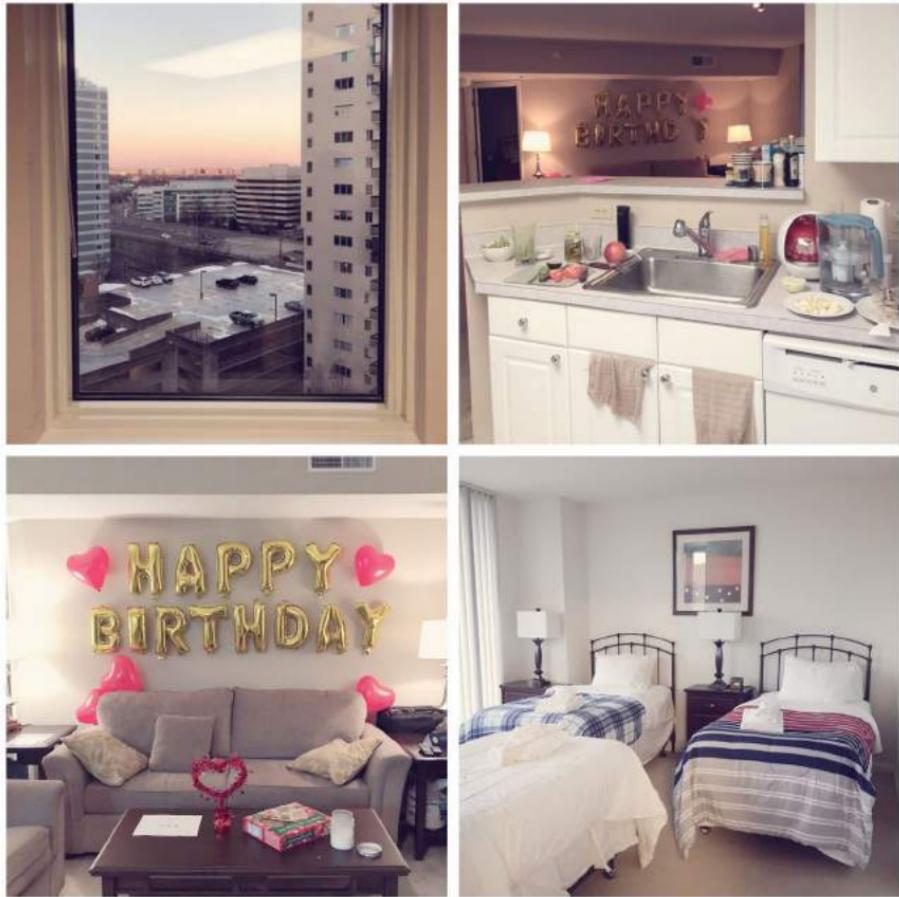
#오늘은 #내가 #요리사



개인생활(3): 주 고급 숙소에서 생활 중 #류태림

원생들이 생활하는 숙소는 고급 숙소다. 역세권 10분, 좋은 전망, 클럽 라운지, 분리된 부엌은 서울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나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숙소다. 룸 클리닝까지 해주는 고마운 이 숙소는 두 층만 올라가면 헬스장에 갈 수 있으며, 옥상에서 야경도 볼 수 있다. 지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루프탑에서 야경을 보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아산서원 친구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한 1/5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원생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숙소를 제공해준 아산서원에게 감사하다.

#전기세 아끼자 #야경은 뎅





279



기억에 남는 워싱턴 명소(1)

워싱턴 박물관 도장 깨기 #김지원

National Mall 근처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들은 주말마다 내게 쏟아지는 선물과도 같았다. 미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를 비롯한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등은 그동안 잘 몰랐던 미국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다양한 박물관을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쉬는 날이면 박물관 도장 깨기를 하고 National Mall의 잔디에 누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순간들이 벌써 그리워지는 느낌이다.

#내셔널 몰 #박물관 도장 깨기



기억에 남는 워싱턴 명소(2)

예술가들의 혼과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미술관 #이상규

정신없는 일주일이 지나고 주말이 찾아왔다. 파란 하늘에 햇살이 쭍쨍하게 비치고 바람도 잔잔할 때 미술관으로 향했다. 차분한 노래와 함께 미술관을 거닐며 예술가의 마음과 생각에 공감하고 상상에 빠진다. 이 그림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렸을까. 이 작품을 통해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었을까 하면서 작품들을 감상하면 시간은 훅 지나가 있다. 특히, National Gallery of Art에서는 반 고흐, 모네, 쿠르베 등의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었다. 다양한 그림의 색감, 봇 터치 그리고 묘사 방식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어 신기하고 인상적이다. 책, 인터넷에서만 본 작품들을 직접 대면하여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술가들의 혼과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다.

#워싱턴 미술관 #혼과 숨결 #경험 그 이상





283



네트워킹

Memories in Washington D.C. #김해인

워싱턴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친구들'이라고 할 것이다. 광화문에서와는 또 다른 추억을 쌓은 14기, 인생 친구가 된 맨스필드 동료 인턴들. 외부 행사와 파티, 전 기수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 모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과 꿈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했고, 서로 다른 관심사와 배경을 이해하며 알지 못했던 길을 발견하기도 했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쌓은 추억은 잊지 못할 선물이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통했던 마음이 참 고맙다. 이제는 흩어져서 어딘가에 있을 서로를 떠올리며 따듯한 그리움을 느낀다. 각자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고 기대한다. 어느 날 다시 만나 지난날을 재잘재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추억 #타카루코 #한국-일본-싱가포르-중국-베트남-미국



AJC 디렉터 Laura, Jewish American과의 만남 혐오를 대처하는 담론의 힘 #이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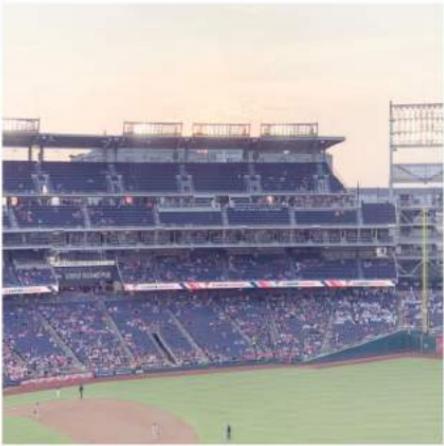
미국의 건국 이념인 '표현의 자유'는 종종 특정 집단을 향한 무차별적 혐오를 가능케 한다. AJC 디렉터 Laura와의 식사를 마치고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끔찍한 탄압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일정 수위를 넘는 혐오 발언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인상적인 답변을 받았다. "탈무드 속 랍비들이 담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대화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라는 답변이었다. 김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주전자는 결국 폭발하고 만다. 누군가의 발언을 무작정 막기보단 이를 우선 드러낸 후 그들의 주장에 또 다른 주장으로 반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방식이라고 했다. 말과 담론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유대인 #표현의 자유 #혐오발언 #discourse #담론



WE ARE THE SHOES, WE ARE THE LAST WITNESSES.
WE ARE SHOES FROM GRANDCHILDREN AND GRANDFATHERS
FROM PRAGUE, PARIS, AND AMSTERDAM,
AND BECAUSE WE ARE ONLY MADE OF FABRIC AND LEATHER
AND NOT OF BLOOD AND FLESH, EACH ONE OF US AVOIDED THE HELLFIRE.

FRANZ KAFKA, METRÍČKOVÝ SLOVÁCKÝ 1920-1940



287



문화생활(1)

낯설고 새로움 #서단비

D.C.는 볼 것도, 놀 것도, 배울 것도 많은 도시다. 미술, 역사 등 방대한 주제의 박물관부터 아이스하키와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 John F. Kennedy Center에서의 클래식 공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그중에서 나를 가장 설레게 만든 것은 다양하고 풍부한 수업이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Co-Ed Soccer Class와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다. 여자 축구 기반이 약한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축구 수업을 Co-Ed Soccer Class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스페인어 수업은 어려웠지만, 미국과 스페인의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신선했다. 낯선 땅에서 다양한 활동과 언어를 통해 새로운 사람과 문화를 만날 수 있어 소중했다.

#워싱턴 #낯설고 #새로움 #배움 #축구 #언어 #소중한 시간



문화생활(2)

끊임없이 설렜던 워싱턴 #김연두

워싱턴에서 평일 저녁과 주말을 알차게 보냈다. 의회 도서관과 중고 서점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신기한 책들을 찾아다니고, 워싱턴 추천 리스트를 하나씩 정복하며 보람을 느꼈다. 미술 주류가 있는 내셔널 아트 갤러리, 여성사 맥락이 담긴 여성 미술관, 현대성에 관한 허쉬혼, 포트렛 미술관과 몬드리안의 작품이 있는 필립스 컬렉션까지. 도슨트를 따라가거나 작품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생각의 틀을 말랑하게 하고 작가들의 상상력에 감탄했다. 스페인어와 탱고 수업, 재즈바, 콘퍼런스를 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가진 삶의 열정에 감동하며 새로운 자극에 끊임없이 설렐 수 있는 워싱턴 생활이었다.

#교양 쌓기 #워라밸





291



봉사활동(1)

그들이 살지 못한 시간을 살아간다는 책임감 #김가은

주말이라서 지하철에 사람이 많은 줄 알았다. 부지런히 다들 어딜 놀러 가나 궁금했는데, 나와 같은 목적지인 Arlington National Cemetery 역에서 내렸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약 천 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묘비 앞 약 265,000개의 wreath를 치우기 위해, 상당수의 사람이 막대기와 줄 등을 가지고 왔다. 그들의 몸짓과 옷차림은 처음 온 나의 솜씨와는 달랐다. 매년 이곳에 모여 봉사했을 그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World War, Korean War, Vietnam War 등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책임감,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보통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국립묘지 #알세



봉사활동(2)

우리 모두 같은 사람 #박지혜

D.C.에 와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볼 수 있었다. 영화제 봉사, 연극 소품 만드는 봉사, 그리고 노숙인들에게 빵과 커피를 나눠주는 봉사 등을 해보았다. 이 중에서 매월 첫 주 토요일에 Franklin Square에서 도넛과 커피를 배급하는 봉사가 나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의 편견과 달리 노숙인 분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빵을 받지 못할까 봐 하나씩만 받아 가셨다. 내가 커피를 따르다 출렸을 때는 휴지로 커피를 닦아주시며 “나도 드디어 빵값을 할 수 있네”라고 말씀하셨다. 추운 날에는 감기 조심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이들과 교류하면서 무서운 노숙인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친절한 이웃을 만날 수 있었다.

#부딪혀야 알게 된다 #배급 봉사 #교류 #노숙자X #노숙인O





295



소모임(1): 화양연화

영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남성현

같이 볼 영화를 선정할 때부터 우리는 서로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원생들과 함께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누니 각기 다른 취향과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리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영화를 보기 위해 시간을 내준 원생들 덕분에 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같은 영화를 봄으로써 서원에서 공유하는 경험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이 영화 소모임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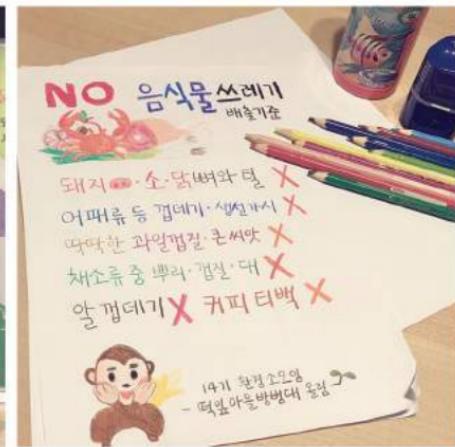
#영화소모임 #화양연화 #예측불허



소모임(2): 떡잎 마을 방범대 한 명이라도 바뀐다면 #이소연

고심 끝에 만든 소모임은 이름하여 '떡잎 마을 방범대'. 파릇하게 싹 틔우는 새싹을 닮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창한 마음을 담은 소박한 이름이었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플라스틱 잔에 담긴 커피 한 잔을 소비하기 전 고민하게 하는 것이 소모임의 목적이었다. 일주일에 한번 모여 소비 습관, 동물 윤리,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 광화문 채식영화제부터 미국 워싱턴 DCEFF 환경영화제까지, 나부터 변한다면,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변한다면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믿으며 공부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없는 하루





299



여행(1)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일상을 여행처럼 #차지현

서원 공식 프로그램이 없는 주말마다 틈틈이 여행을 다녀오긴 했지만 내게 최고의 여행지는 D.C였다. 서서히 깊어가며 내가 사는 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 지하철로 빠르게 지나치던 출근길을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둘러보고, 새로운 트레일을 발견하기도 하고, 가만히 공원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기도 하면서 먼 곳으로 떠난 여행보다 더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반복되는 나날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졌다. 조금만 시선을 바꾸고 둘러보면 늘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이 가득한 곳이 D.C였다. 처음 D.C.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도 낯설었던 길이 이제는 우리 동네가 되었고, 어색해서 괜히 장난스러운 농담이라도 던지던 원생들과는 침묵도 편해진 만큼 이 곳에서의 5개월이 가장 기억에 남을 여행지다.

#일상을 여행처럼 #워싱턴찰랄 #D.C. 뽐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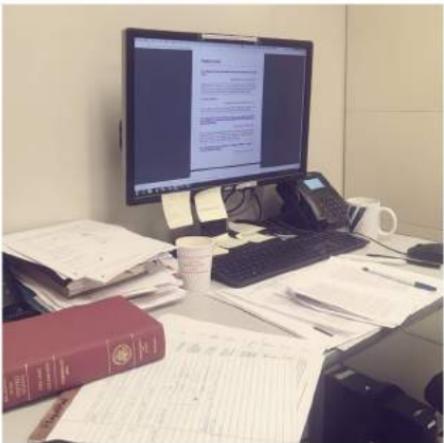
여행(2)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함을 되찾는 방법 #김민정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내가 선택한 방법은 여행이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혼자만의 여행을 가기도 했고, 에너지의 재충전이 필요할 때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친구들과 함께 한 플로리다 올랜도다. 숙소에서부터 꽤 거리가 있는 마트까지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뛰어가던 것,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마트에 가서 저녁거리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점심거리까지 다 사서 도시락을 싸다닌 것. 그저 얼굴만 봐도 서로 웃기에 바빴던 것. 특별한 것 없이도 매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여행이 이렇게나 즐거웠던 이유는 너무 좋은 친구들과 함께했기 때문이고, 또 평소에 바쁜 일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여행 덕분에 나는 또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다.

#바쁜일상 탈출 #여행을 떠나요 #친구들과 함께





303



원생의 하루

어느 워싱턴 인턴의 하루 #김소현

아침 7시, 링컨 메모리얼이 보이는 숙소 창가에서 별을 맞으며 일어난다. 미국의 중심 워싱턴 D.C.의 메트로를 타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출근길에 오른다. 기관에 도착해서 메일을 확인하고 콘퍼런스를 체크하며 참석할 이벤트를 고른다. 점심시간, 센터의 카페테리아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프로세스를 소개하는 발표가 열린다.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으며 학자들의 연구를 엿듣는다. 오후에는 냉전 시대 외교 문서와 사료를 요약 및 정리하고 아카이빙한다. 퇴근 후, 숙소에 돌아와 원생들과 요리를 해 먹으며 센터에서 느꼈던 감정과 일들을 하나씩 풀어낸다. “아, 우리가 D.C.에 있구나!” 다시 한번 상기하며 잠이 든다.

#워싱턴 인턴 생활 #콘퍼런스의 도시 #자기PR #연구 #행복해요
#Wilson Center 인턴



Asan_Academy

기자단에게 #보야지란?

김소현



원생들의 생각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창구!
보야지를 통해 14기 원생들을
더 잘 알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김해인



보야지 작업을 하며 일상에서의 특별함을 발견했고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박신혜



우리들의 추억을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든 회상할 수 있게
아카이빙하는 소중한 작업이다.



Asan_Academy

기자단에게 #교열이란?

박지혜



14기 원생의 추억을 더 생생하게 담을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다듬기도 하며
14기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작업이다.
기자단, 원생들, 혜민쌤 수고하셨어요♥



Asan_Academy

렌즈를 통해 본 #14기 원생들의 모습은?

차지현



23명 모두가 고유한 색을 가졌다.
사진에서 원생들의 개성이 더 돋보인다. 알록달록
다른 색이 모여 더욱 빛을 발하는 14기의 매 순간을
기록할 수 있어 즐겁고, 감사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은 통일, 외교, 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싱크탱크





309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은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2011년 10월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기업가정신

#아산서원
#제14기
#VOYAGE

#펴낸날 2019년 08월 07일

#펴낸곳 아산서원

#엮은이 아산서원 제14기 원생 기자단

#편집인 아산서원 운영실

#편집디자인 EGISHOLDINGS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asanacademy.org

아 산 서 원

A S A N
ACADEMY

峨 山 書 院

www.asanacademy.org